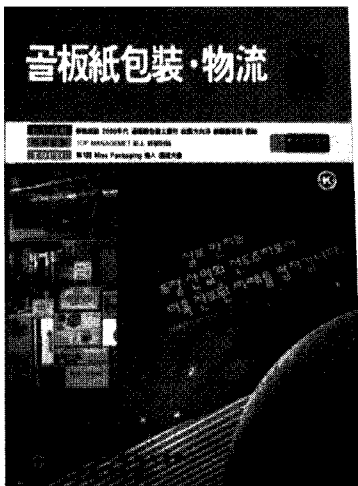


이번 창간호에는 관련단체장들의 축사, 창간특집 좌담회, TOP Management 경영토론, 골판지 포장공업 신경영 혁신전략자료, 골판지포장·물류산업 정책, 물류강좌, 패키징 디자인 강의 등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내용과 미스패케이징 선발대회, ENDUSER 초대석, 스포츠, 취미 생활 등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난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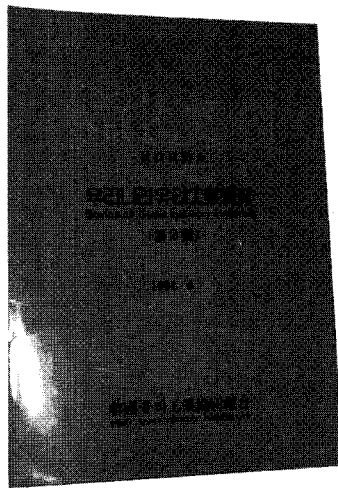
조합은 이책을 올해에는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월간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한편 다음호에는 국내의 골판지포장 산업기계의 성능현황과 전망, 학계 논단 골판지원지의 기초물성과 강도 등을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유리종류의 통계자료를, 제4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유리제품관련 현황, 제5장에서는 유리제품관련 주요 원부자재 현황을 신고 있다.

제6장에서는 정부의 각종 자금 융통지원제도를, 제7장은 국내 유리제조 및 가공관련 업체명부,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유리산업의 KS 품마크 허가업체 현황을 다루어 이 책 한권으로 국내외의 유리산업 전반을 알 수 있게 했다.



유리공업 현황 펴내

유리조합, 각종 자료 풍부하게 수록

한국 유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광열)은 '우리나라 유리공업현황' 제2호를 발간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펴낸 이 책에는 국내외의 유리공업현황과 역사, 통계, 관련제도 등 유리업계와 관련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실려있다.

제1장에서는 유리의 일반현황으로 유리의 역사, 성분, 제품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국내 유리공업 현황으로 국내 유리공업의 흐름, 유리조합 현황, 유리제품 제조업의 정부 표준산업분류, 유리전공 교수의 논문, 수출입 관련 문제점을 다루었다. 제품 생산, 판매 및 수출입 현황으로

고지수집상 협력업체 지정

세림제지, 자금지원 등 혜택

무림제지(대표 이동욱)계열의 세림제지가 전국 8개 고지수집상을 협력업체로 지정, 운영한다.

세림제지는 지난 4월부터 이들 업체에 협력회사 간판을 부착토록 하고 이들에 사전 품질기준을 고시한 후 수집한 고지를 전량 구매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우수업체는 어음기일을 단축하고 각종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림제지는 지난달 25일부터 3박4일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동경의 고지수집 야드 및 처리설비에 대한 설명회와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지는 제지의 주요 원료면서도 그동안 업계의 영세성으로 원료의 품질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으나 이번 제지회사와 고지수집상 간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안정적인 원

료확보와 고지의 품질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유럽·미주지역 방문 시장조사

대원특수포장 허방욱 사장

대원특수포장공업(주)의 허방욱 사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수출전망 및 시장조사를 한데 이어 유럽지역과 미주지역의 시장을 파악하고 지난달 17일 귀국했다.

허 사장은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앞으로 중국 등 동남아시아지역에는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신제품 개발을 서두를 것이라 밝혔다.

특히 중국 방문에서는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져 조건이 맞다면 올해 말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화제품 재고 줄어

에틸렌 4월중 23%나

국내 공장들의 정기보수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원료 및 제품의 재고가 대폭 줄어 들었다. 지난달 석유화학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양화학, 현대석유화학 등의 NCC나프타 분해공장 정기보수로 출하가가 크게 줄면서 4월중 에틸렌 재고량은 2만3천톤에 그쳐 3월에 비해 22.9%(7천톤)가 감소했다.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섬고무 등 3대 제품의 재고도 38만6천톤으로 3월의 44만2천톤에 비해 12.8%가 줄어 들었다. 이는 국내 공장들의 정기보수로 출하가 12.3%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고현황을 부분별로 보면 합섬원료가 4만9천톤에서 4만2천톤으로 15.1% 줄어 들었으며, 합성수지는 재고가 36만5천톤에서 32만톤으로 12.3%가 줄어 들었다.

품목별로는 수요증가로 국제가가 큰폭으로 뛰고 있는 HDPE가 5만톤으로 33.1% 감소했고 PVC도 2만9천톤으로 23.8% 줄어 들었다.

공급과잉 품목인 PP는 11만9천톤에서 11만2천톤으로 5.2%가 감소, 수급상황이 호전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합작공장 설립

평화, 중국 북방요공무집단

플라스틱파이프 업체인 평화플라스틱공업이 중국의 심양에 플라스틱파이프 합작공장을 건설했다.

이 공장은 평화플라스틱공업이 중국의 북방요공무집단 공사와 51대 49의 비율로 합작 건설한 것으로 10개월간의 공사 끝에 최근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심양시 우흥구에 소재하고 있다. 대지 6,000평, 건평 1,500평의 이 공장은 평화플라스틱공업이 기계, 설비, 금형 등으로 실물투자를 하고 중국측은 토지와 건물을 제공했다.

생산품은 PVC파이프와 이음관으로 중국의 건설특수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화제품 품귀로 반전

수요급증, 내수가 오름세

90년대 들어 경기부진에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던 석유화학제품이 최근 수요증가 및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가격이 속등, 유화업계의 형편이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이달들어 지난해 말보다 내수가격이 13~23% 가량 급증했고 그나마 물건이 귀해 수요업체들이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변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품귀현상으로 현대석유화학, 대림산업, 삼성종합화학, 한양화학, 대한유화, 유공, 호남석유화학 등 주요 생산업체들은 수요업체에 대한 공급물량을 전년도분보다 10%정도만 늘려 한정 배분하고 수출량을 줄이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로 인한 이들 제품의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보여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공급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품목은 PP, PE, PVC, 옥탄올 등이다.

지난해말 톤당 37만~40만원이던 PP는 6월에 45만~46만원으로 15%,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는 42만~43만원에서 52만~53만원으로 23%,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는 37만~40만원선에서 43만~45만원으로 13% 정도 올랐다.

PVC의 경우 그동안 럭키와 한양화학 등 국내 2개업체에서 생산하는 연간 80만톤과 6천~7천톤씩의 수입물량으로 내수 수요를 충당했으나 최근들어 국제 가격이 톤당 850~900달러(C&F기준)로 오르면서 수입길이 막혀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 R&D 투자 활발

총 매출의 1.13% 투자

지난해 설비투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산업은행이 발표한 '93년도 재무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92년보다 21.5%증가했다. 이에따라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년 1.03%에서 지난해는 1.13%로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전년보다 22.74%가 증가, 대기업의 증가율(20.95%)을 앞질렀다.

제조업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 %)

구 분	매출액대비		증가율
	92년	93년	
제조업	1.03	1.13	21.47
대기업	1.33	1.46	20.95
중기업	0.41	0.45	22.74
음 식 료 품	0.25	0.26	11.64
섬 의 복 모 피	0.40	0.43	13.66
가 죽 신 발	0.15	0.36	194.20
출 판 인 쇄	0.15	0.11	△ 27.66
석 유 정 제	0.49	0.28	△ 33.60
화 합 물 · 화 학 제 품	0.14	0.16	26.58
고 무 · 플 라 스틱	0.80	0.81	10.63
비 금 속 광 물	1.20	1.37	23.86
철 강	0.35	0.36	7.03
조 립 금 속	0.83	0.89	20.42
기 계 장 비	0.32	0.52	72.21
사 무 회 계 기	1.12	1.24	20.72
영 상 음 향 통 신	1.74	1.10	△ 23.66
자 동 차	3.45	3.64	28.23
선 박	1.92	2.15	33.26
	0.50	0.64	39.81

그러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대기업이 1.46%로 중기업의 0.45%보다 여전히 3배 가까이 높았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설비투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것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제조업체의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9.53%에 그쳐 지난 85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다.

라이너지 생산설비 확충

한수, 하루 6백톤 규모 96년 가동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메이커인 한국수출포장공업(대표 허삼락)이 오산공장에 골판지의 원지 인라이너지 생산설비를 대규모 확충한다.

한국수출포장공업은 지난해 설비를 폐기한 오산 골판지상자 공장부지에 일산 6백톤 규모의 라이너지 생산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발멧사, 탐펠라사 등 제지설비업체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설비발주는 95년초에 들어가 96년초부터 가동할 계획이며 투자규모는 7백억~8백억대로 추산된다.

이 회사는 증설작업이 완료되면 라이너지 생산능력이 일산 1천1백만톤, 연산36만3천톤 규모로 크게 늘어난다.

한편 회사측은 최근 경기호조로 라이너지 수출증가에 힘입어 시장이 연간 15%내외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증 설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폐합성수지 펠리트 제조

영진합성수지, 활용대상 넓어

(주)영진합성수지펠리트공업(대표 이상일)은 지난 91년 이 회사가 특허 출원했던 '합성수지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펠리트 시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어 시판을 위한

양산체제를 준비중이다.

합성수지 펠리트는 섬유 의류 비닐 플라스틱 등을 분쇄해 섞어 넣은 뒤 열가소성 수지에 함침시켰다가 고온 고압으로 압축해 만드는 것으로 조직구조를 목재와 흡사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못질 톱질이 가능한 것은 물론, 원료선택과 압축강도에 따라 물성의 조정이 가능해 단단한 바닥재부터 다소 무른 판재까지 활용대상이 가능하다.

회사측은 막대한 설비투자비용 때문에 양산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펠리트는 못쓰면 분쇄해 재생할 수 있어 재 활용하고 산림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제품이라고 밝혔다.

상해에 기저귀공장 설립 추진

신호제지, 연산 1억개 규모

신호제지그룹(회장 이정국)이 중국측의 제의에 따라 상해에 합작 야기기저귀 공장 건설을 검토중이다.

지난달 신호제지 해외투자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차이나 내셔널 패키지 코퍼레이션사로부터 최근 합작 야기기저귀 건설에 대한 의향서를 받고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측의 의향서에 따르면 상해지역에 자본금 6백50만달러에 신호 70%, 중국 30%의 지분으로 연간 1억~1억1천만개 생산규모의 기저귀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기저귀공장은 중국측이 토지를, 신호측이 기계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합작하되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허가는 이미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용지 가격 정상화

업계 제값받기 운동 따라

제지업체들의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지난해 20~30%까지 할인 판매되던 백상지 아트지 등 인쇄용지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업체들이 제값받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정상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지난달 관련상가에 따르면 지난해말 톤당 380달러 선을

형성하던 국제펄프 가격이 올들어 급등세를 보여 최근 5백달러선을 형성하는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들이 올들어 점차적으로 제값 받기를 추진, 최근 들어 정상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업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백상지 70g/m² 짜리가 정상출고 가격인 연당 2만3천7백6십원(부가세 포함), 80g/m² 짜리가 2만5천8백오십원, 1백g/m²짜리가 3만2천3백4십원선에 출고되고 있다.

또 아트지도 1백50g/m²짜리가 연당 5만7천6백40원과 4만6천9십원, 1백g/m²짜리는 연당 3만9천3백80원선에 각각 출고되고 있다.

바젤규약서 고지 제외

제지업계 안도속 추이 관망

제지업체들은 바젤협약과 관련한 수출입 규제대상 폐기물에서 고지가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되자 안도하는 표정이다.

한솔제지, 대한제지 등 제지업체들은 제지연합회를 중심으로 고지에 대한 규제가 부당하다며 관계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온갖 노력을 펴 왔으나 환경처가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상공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가자 긴장했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는 고지가 종이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데다 선진 각국의 움직임도 고지를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자 이를 제외키로 했다.

제지업체들은 "만일 고지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 연간 약 2억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수입승인에 따른 절차 번잡 등 큰 어려움을 겪을 뻔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상공자원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환경처가 아직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어서 오는 11월말까지로 예정된 품목 확정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고지는 국내의 회수부진으로 지난해 1백46만톤, 2억8백21만달러나 수입돼 주로 신문용지 생산에 투입됐으며, 신문용지의 경우 원자재에서 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다.

압출기 합작공장 기동

삼원, 중국 현지판매·수출 병행

압출성형기 전문생산업체인 삼원기계(대표 최기섭)는 중국 산둥성 압출기 합작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삼원은 산둥성 문등시의 문등제일기계유한공사와 51:49의 비율로 모두 155만달러를 투자, 3,000평 규모의 대지에 압출성형기 공장을 건설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중국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압출기 가운데 80%는 현지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20%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 15개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삼원기계는 지난 75년 설립돼 그 동안 필름, 파이프 등을 성형하는 압출기를 생산해 왔는데 올해 매출을 50억원으로 잡고 있다.

국제플라스틱·고무전 열려

16개국 157개사에서 신제품 경연

한국일보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주최한 제12회 국제플라스틱·고무전시회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렸다.

16개국 157개사에서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등 원료 및 신소재, 건축, 기계, 전자분야에 적용되는 제품 및 반제품, 사출, 압출 등 관련기계, 기타 분석, 시험기기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의 우수한 플라스틱·고무제품, 가공기기 및 관련기기를 전시소개하여 상호 기술정보 교



6월 11일 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제12회 국제플라스틱고무전(Koplas '94) 개막식 장면

환은 물론 이를 통해 국내 관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 교역진흥에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전시회 기간동안에는 일본 플라스틱공학연구소 총장건길 대표의 '최근 압출성형의 문제와 제어기술'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해펄프 대표이사 경질

최병면 전무, 대표이사겸 부사장으로 선임돼

동해펄프는 지난달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병면 전무이사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임규식 이사를 상무이사로, 전재준 비상근이사(삼덕제지 회장)를 비상근 회장에 각각 선임했다.

환경처 인사

〈과장〉 ▲대기정책 전병성 ▲교통공해 손희일 ▲상수원 관리 선우영준 ▲환경공무원 교육원 서무 김원민 ▲행정 관리담당관 문정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과전 홍준석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행정실장 이희수

독일 국제포장재생산기술전 성황

전세계 93개국 37,500명 참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렸던 뒤셀도르프 국제포장재생산기술전시회 (PaPro)는 28개국에서 800여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번 전시회는 포장재 업계의 경기회복을 반영한 것이라 평가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출품사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은 물론 현지에서 계약된 물량보다는 전시회 이후의 비즈니스가 더 기대된다는 만족을 표시했다.

지난 91년의 전시회보다 관람객 숫자에서 약 5%의 증

가를 기록한 이번 전시회는 전세계 93개국에서 총 37,500명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Papro94 전시회 위원장인 도데러 빈클러 박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각 출품사들이 체결한 판매물량으로 보아 기계 제조 및 가공산업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좋은 증거라고 밝혔다.

출품사들은 특히 방문객들의 수준 높은 전문성에 매우 만족스러워 했는데 해외에서 온 방문객의 대부분은 중간 간부 또는 임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분야는 포장재 생산기계 및 기기, 제지 가공, 골판지 가공, 플라스틱 가공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50% 정도가 외국에서 온 참관객들이었는데 그중 약 16%가 아시아권에서 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주 펄 재생공장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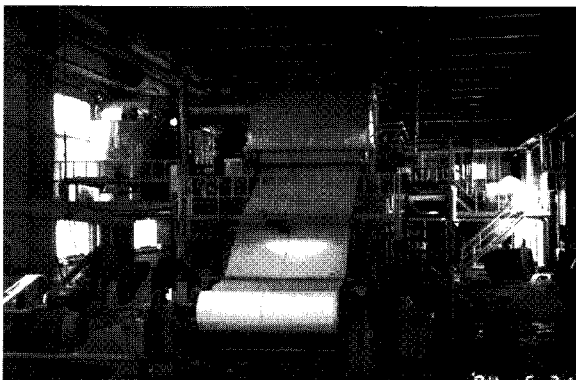
중앙펄프, 화장지·냅킨원단 생산

위생지 전문업체인 중앙펄프(대표 이명옥)가 폐우유팩을 가공 처리해 고품질의 화장지 및 냇킨 원단을 생산하는 정주공장을 완공,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모두 60억원이 투입돼 전북 정주시 영파동에 건설된 이 공장은 대지 1,500평, 건평 600평 규모다.

이 회사는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조달한 폐우유팩으로 월 600톤의 두루마리화장지 원단 및 냇킨 원지를 양산할 수 있는 최신 자동화 설비체제를 갖추고 있다.

중앙펄프는 이곳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국내 중소 화장지제조업체에 공급해 올해 60억원, 내년에는 이보



추출된 원료로 화장지, 냇킨원단을 생산하고 있는 중앙펄프의 설비

다 67% 늘린 1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출에도 본격 나서기로 하고 최근 계열사인 중앙물산을 설립한데 이어 1차로 중국 심양시 심양중앙화학으로부터 연간 100만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앙펄프는 또 올 8월말까지 25억원을 투자, 화장지 원단제조기인 초지기 1대를 증설하기로 했다. 증설작업이 완료되면 이 회사의 화장지 원단 및 냇킨원지 생산량은 월 800톤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자본금 5억원의 이 회사는 지난 84년 재생 우유팩을 원료로 한 냇킨원지 제조특허를 획득하고 이를 사업화 하기 위해 92년 8월 대전에 설립됐다.

백판지 대일 수출 본격화

대한펄프, 꾸준한 판촉활동 결실

판지전문업체인 대한펄프(대표 최병민)가 일본지역으로의 백판지 수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대한펄프는 올들어 일본 최대 인쇄소인 대일본인쇄소에 백판지시험 수출에 성공한데 이어 지난달 일본지역의 18개 대형인쇄소 등 거래처에 월 2천톤 상당의 백판지를 직수출하게 됐다.

대한펄프는 일본 인쇄업체들의 까다로운 품질검사 과정을 통과, 우리나라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일본 현지신문 등에 광고를 내는 등 판촉활동을 전개, 백판지 수출에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대한펄프는 일본이 엔고로 인해 값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백판지 수입을 늘리고 있음을 감안, 일본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화업체 공장 풀 가동

수요증가 대비한 포석

석유화학업체들이 급증하는 국내외 수요증가에 대비, 공장을 거의 풀 가동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럭키, 유공, 대림산업, 한양화학, 현대석유화학을 비롯

한 8개 나프타분해센터 업체들의 가동률은 기계적 특성 등을 감안, 사실상 완전 가동 상태인 7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57%보다 무려 15%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PVC 등 계열제품 공장들의 가동률도 76%로 지난해의 66%보다 10%나 높아졌다.

내수의 경우 5월말 현재 합성수지, 17.9%, 합섬원료 6.8%, 합성고무 5.1% 등 지난해보다 평균 12.4% 증가했다.

수출 수요는 합성수지 8.3%, 합섬원료 9.4%, 합성고무 12.5% 등 평균 8.5%가 늘어났다.

다모아, 풍원제지 인수

원자재 안정확보 목적

문구업체인 다모아(대표 김형권)가 중견 인쇄용지 업체인 풍원제지를 인수했다.

지난달 15일 다모아의 김형권 사장과 풍원제지의 대주주인 김행세 씨는 다모아의 풍원제지 인수에 합의했다.

인수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채를 포함 약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모아가 풍원을 인수한 것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풍원은 지난 80년 창업한 업체로 전북 김제에 일산 100톤의 인쇄용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88년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에도 인쇄용지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엔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다모아의 풍원인수는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중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모아는 지난 92년 인쇄용지업체로 법정관리중인 화성제지를 인수해 성공적으로 기업경영을 해왔는데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높이 평가, 풍원의 인수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다모아는 85년 김 사장이 설립한 문구업체로 창업한지 10년도 안돼 앨범, 노트, 스케치북 등 지체품 문구류의 국내시장 점유율 30%에 이르는 중견 문구업체로 성장했고 지난해 매출은 300억원에 달했다.

다모아측은 문구제품의 70% 이상이 종이제품 이어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제지사업을 강화하게 됐

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화성제지에서 노트, 도화지, 백상지를, 풍원에서 레자크지, 색지를 생산하는 등 지종별 전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풍원의 생산능력도 현재의 2배인 일산 200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제 종이산업전 및 세미나 열려

선진제품 및 첨단기술 비교 전시

제3회 국제 종이산업전과 제21회 펄프종이기술 국제 세미나가 지난달 23~26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한국진람(주) 주최로 열린 이번 국제 종이산업전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진 제품과 국내 제품을 비교·전시함으로써 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전시회 기간중 펄프종이기술 국제 세미나가 선진국의 정보활용과 첨단기술을 국내 산업에 접목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일본, 미국 등지에서 온 관계 전문가들이 펄프 고지 기계 등에 관해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지난 6월 23일 개막된 제3회 국제종이 산업전 및 세미나 개막식 장면

중국 유화플랜트 공략

현대, 연 20억불 시장 규모

현대그룹이 연간 2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

의 석유 및 화학관련 플랜트시장 공략을 본격화 한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15일 중공업, 건설, 엔지니어링 등 관련 계열사들을 중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석유전시회와 해양플랜트 입찰에 적극 참여시켜 현지 상담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시장개척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오는 9월14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중국 석유94' 전시회에 국내 최초로 대표단을 파견, 석유개발 관련 플랜트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대한 현지 상담을 벌인다.

현대중공업은 이 전시회 기간중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는 해상 및 육상 석유화학 플랜트시장을 겨냥, 석유시추시설, 철구조물 등의 상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또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오는 8~9월중에 실시하는 총규모 3억~4억달러짜리 상해 앞바다 석유개발 플랜트 공사의 입찰에도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동남아, 중동지역의 석유개발 정제관련 플랜트제작 및 건설에서 축적해 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소규모 플랜트 수주에서 대규모 공사참여 쪽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 회사는 지난 92년 중국 플랜트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그동안 남중국 해역의 소규모 석유개발 플랜트 등 5건(1억 달러 규모)을 수주하는데 그쳤었다.

현대건설은 중국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15억 달러 규모의 양자장 소량저담 공사 입찰에 참여,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중국의 플랜트제작 및 설계시장에 신규 참여하기 위해 '중국석유94'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공업 등 계열사들과 현지에 동반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화 일부품목 재고 바닥

가격상승 대비 원료확보따라

중간원료인 SM(스티렌 모노), VCM(비닐클로라이드 모노머)과 합성수지인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등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5월 중 재고가 지난해에 비해 15%에서 최고 40%선까지 대폭 줄었다.

이들 품목의 재고가 이처럼 격감한 것은 수요업체들이 세계적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에 대비, 값싼 석유화학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가공업체들이 원료생산 업체들의 원가인상 요인의 일부 반영으로 국제가에 비해 톤당 최고 50달러 이상이나 싼 국내물량의 구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도 재고감축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5월중 재고상황을 품목별로 보면 PVC원료인 VCM의 경우 2,200톤으로 4월의 3,700톤에 비해 무려 40.5%가 줄어들었다.

이는 PVC업체들이 국제가가 톤당 60달러 이상 오른 PVC생산을 11.3%나 늘리면서 VCM구매를 크게 늘린데 따른 것이다.

PS(폴리스티렌)원료인 SM의 경우 19,000톤으로 4월의 26,000톤에 비해 24.3%가 감소했다.

이같은 재고감소는 PS업계가 지난달에만 톤당 30달러 이상이나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 SM을 자체수 이상으로 대량 구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공급과잉 품목인 PE, PP의 경우에도 가격 강세를 예상한 일부 중소 가공업체들의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재고가 크게 줄어 들었다.

PP는 85,000톤으로 4월의 113,000톤에 비해 24.6%가 감소, 합성수지 가운데 재고가 가장 많이 줄었다.

LDPE(저밀도폴리에틸렌)는 52,000톤으로 19.1%가,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는 41,000톤으로 15.3%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산 10만톤 규모 증설 추진

영풍, 지관원지·라이너지 생산설비 갖춰

영풍제지(대표 이무진)가 지관원지와 라이너지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설비증설에 나선다.

지난달 회사 투자임원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연산 10만톤 규모의 설비를 증설하기로 하고 최근 국내 제지설비 전문 업체인 태광특수기계에 발주 의향을 전달했으며 거래은행

과 협의를 거쳐 내달 중 설비 발주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증설엔 아직 투자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1백억원대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영풍제지는 내년 중반까지는 생산라인 설치를 끝내고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가동에 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증설하는 초지 3호기는 종전의 지관원지뿐만 아니라 골판지원지인 라이너지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지폭은 4000mm, 분당생산능력은 라이너지의 경우 최고 400m 정도 가능하며 연산 10만톤 규모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3호기가 설치되면 1호기는 폐기처리할 예정이다.

영풍제지는 그동안 초지1, 2호기에서 일산 250톤 규모의 지관원지를 주로 생산했으나 앞으로 3호기가 증설되면 지관원지와 함께 라이너지도 동시에 생산, 지종 다각화를 이루게 된다.

지관원지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등 화섬원사 등을 감는 실패나 비디오 테이프를 감는 데 쓰이는 종이원료로 천연펄프를 50%이상 사용해 강도를 높인 제품이다. 이에 비해 라이너지는 펄프 비율이 2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아 종이상자로 활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풍제지가 일산 250톤, 온양펄프가 일산 50톤 규모의 지관원지를 생산중이고 일부 물량은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물류 통계 천태만상

조사기관 따라 14배차도

물류비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조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해 객관성 있는 물류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류관리협회(회장 안태호)가 최근 3년간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단체 및 조사기관이 발표한 '국내기업의 매출액대비 물류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나 기관에 따라 통계 수치가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

예컨대 한신경제연구소가 지난 91년 국내 442개사의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산출한 매출액대비 물류비율은 1.2%에 그치고 있으나 9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수치는 17.4%에 달했다.

또 93년 한국은행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물류비율도 1.7%로 92년 생산성본부가 동일한 제조업종에서 실시한 통계수치(8.5%)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물류관리협회의 김정환 전무는 "업체나 조사기관에서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물류비 산정기준이 없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또 "정부가 기업의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유도하고 물류관련 정책효과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객관성 있는 물류비 산정기준을 제정,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미네이팅기 중국 수출

서일, 성능·가격경쟁유리

압출기 전문 생산업체인 서일기계공업(대표 이홍행)이 플라스틱 사출기의 일종인 라미네이팅기의 중국수출 확대에 나섰다.

지난달 서일기계 측은 "지난 4월 중국 유한공사에 라미네이팅기 1대를 수출한데 이어 최근 산동성 성해 플라스틱공사와 같은 기계 2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일기계가 수출하는 라미네이팅기는 대당 1억 4천만원 짜리로 8월에 선적할 예정이다.

이 기계는 서일기계공업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사출기 제작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일본 제품에 비해 가격이 60%정도 싸고 성능면에서는 30%이상 높다고 동업계는 평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전시회 열려

남경포리머의 분해성 필름 인기

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회장 서판규)가 주최한 제4회 소비자 정보전시회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삼풍백화점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바르게 알고 씹시다'란 주제로 상품과